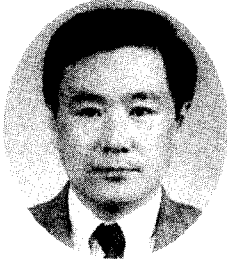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한 병 권  
한스조경 대표

地被植物이란 용어의 본격적인 사용은 1990년 이후의 신도시 지역의 조경과 대전 엑스포 전시장, 그리고 일부 종합병원과 아파트 등의 조경공사에 시공됨으로써 새로운 조경식물 소재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할 수 있다.

국내에 있어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地被植物의 용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의 그리고 관계 자료와 책자 등이 상당히 부족하여 일부 재배 관계자와 극히 제한적인 사람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배 또한 정보의 부족과 모수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신소재에 대한 판매여부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는 자생초본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진을 수록한 책자의 발간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한 여러 참고할만한 서적과 연구가

## 지피식물의 재배 및 판매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부족하나마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地被植物은 이미 오래전인 고려, 조선시대 부터 전정(前庭)의 화단과 후원(後園)의 화계에 옥잠화, 비비추 등 오늘날의 地被植物이라 분류되고 있는 식물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생산은 1980년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의 주요 재배수종은 외국 도입종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는 환경보호 차원의 자생식물의 보호와 육성 보급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숙근성 다년생 자생초본류가 새로운 개발수종의 주종을 이루는 등 앞으로의 수종의 개발 범위는 광범위하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부터는 신도시 택지개발 등 다양한 성격의 조경공사 현장에서도 지피식물의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져 1997년 연간 판매액이 약 33억 정도의 시장규모로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종은 외래종 및 향토수종을 포함하

여 약 200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대량 판매수종은 이중 약 70종으로 판매수종의 30%(94·95년 조사결과 총 66종 중 20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목본류와 초본류의 구성비율은 30:70정도로 국내 자생 초본류의 사용이 근간에는 우세하고 있는 실정므로 새로이 지피식물의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배자들에게는 다품종의 시작보다는 소품종에서 서서히 다품종으로의 확대 재배하여야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地被植物(Ground Cover Plants)의 생산은 초기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대량 생산체제로 전환된 시점으로 앞서 생산을 하여 왔던 기존의 몇몇 농장이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인 생산체계이며 일부 품종에 있어서는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지피식물의 재배 및 판매는 앞으로의 사용증가 추세로 보았을 때 기존의 생산 수량으로는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전국적인 지피식물의 사용과 일반인의 자생초본류 및 목본류에

대한 재인식을 가정하여 볼 때 중부지방에 생육 가능한 수종의 재배에 제한되고 있는 지금의 현상에서 탈피하여 남부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생산 역시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지피식물에 관한 일반적인 여러사항을 소개함으로써 현재 조경수목을 생산하고 있는 회원에게 지피식물의 재배를 통한 소득의 증대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 1. 지피식물이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지피식물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외국(특히 일본)의 문헌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경공사를 위한 소재로서의 지피식물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지표면에서 수고 50cm 이하로 성장의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 지상부의 성장은 더디면서 지하경의 성장이 뛰어나고
- 엽, 화, 과, 수형, 수피 등 관상적 가치와 방향 등의 특성을 지니며
- 병충해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 식재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 재배 및 공급이 원활한 수종



▲지피식물의 파종

으로서

- 사면, 평지 등의 지형에서 토양의 유실방지, 기후조절 기능을 지니며

군식으로서 일정한 피복상태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 다년생 목, 초본류이며
- 도입종, 자생종 모두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년생 목, 초본류 중 조경공사 현장에 식재 후 여러가지 자연환경 조건과 인위적 조건 등에 대한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품종의 균일성과 통일성 또한 지니고 있어야 한다.

## 2 지피식물의 판매현황

지피식물의 판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조경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현재까지는 조경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85% 이상을 차지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수종이나 수량

에 있어서 극히 소량이며 품종 또한 관상적인 가치를 지닌 일부 품종에 제한되고 있는데, 그러한 수종으로는 할미꽃, 은방울꽃, 등글레, 노루오줌 등의 꽃을 관상 대상으로 하는 식물이나 향토성을 지니면서 희귀성을 지닌 돌단풍(자연보호식물), 제비꽃, 노루귀, 복수초, 매발톱꽃, 할미꽃 등 희소가치를 지닌 수종으로서 이러한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상(회원)을 통하여 분(盆)에 담아서 계절에 따라 출하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량생산을 통한 생산원가의 절감과 판매의 유용성을 위해서는 조경공사용으로의 판매에 주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수요처와 직접적인 판매망이 구축되는 지피식물은 생산자와 중간 납품업자 그리고 소비업체로 구분되는 교·관목의 수목 유통체계에 비하여 직접적 판매로서 재배에 대한 이윤 또한 극대화 할 수 있

며, 수목의 판매유통 특성상 품귀 수종의 경우는 재배업자로서 자격에 있어서 또한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피식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상품의 굴취, 포장, 운반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자. 이는 각 식물의 상품 규격과 특성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운반과정에서의 건조피해를 막기 위해 박스내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가. 분얼, 개화구의 굴취

분얼, 개화구 규격의 식물은 노지재배가 대부분이므로 식물의 성장 특성에 따라 세근의 성장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까지 깊게 굴취한다. 구근의 경우는 구근피와 엽아에 상처가 입지 않게 유의하여야 한다.

#### 나. 포장

분얼, 개화구의 경우 굴취 후 세근의 수분 보습상태가 양호하게 즉시 뿌리를 정리하여 분얼의 경우는 포장 상자에 일률적인 방향으로 눕혀 포장하며, 구근의 경우는 중첩 포장한다. 포트의 경우는 초장이 상하지 않게 세워서 상자에 포장한다. 일부 수종은 상자 외 마대(붓꽃과, 맥문동 등) 또는 기타 포장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 다. 운반

잘 포장된 상자는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첩첩이 쌓아 운반하는

데 그 층 수는 포장상자의 내구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상자 내의 식물의 포트 모양과 기타하중을 고려한 적정 높이까지 상자, 운반한다.

### 3. 지피식물의 재배

국내에 있어서 지피식물을 생산·판매하는 전문농장은 충북 청원의 (주)한림녹화 건설의 지피농장, 지피식물원의 고양, 한계령농장, 안성의 한택식물원, 강화의 한수농원, 포항의 기청산식물원과 프로아트, 영주농원, 전남 구례의 대한종묘원 등이 있으나 재배를 원하는 경우 이러한 기존의 재배농장을 사전 답사하여 모수의 분양, 재배관련 지식과 판매방법 등을 문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각 기존 농정은 개개인의 답사보다는 단체의 견학에 대하여서만 응할 수 있을 것이며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개인 소유의 농장 외 각 시·도의 임업연구원의 수목원, 한국전력의 청평 고산식물원, 과천 대공원내의 재배포지 등 견학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비영리 식물원도 있다.

#### 1) 재배 수종의 선정

재배 수종의 선정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재배에 따른 판매를 항상 고려한 선정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선정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모수의 구입 용이성

국내에서 재배되고 사용되는 지피식물의 약 60%는 국내 자생종이지만 40%는 외래 도입종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판매되는 사사는 일본이 원산지로서 국내 지피식물의 시작과 함께 도입된 수종으로서 사용량이 많으나 보유농장의 제한으로 모수의 구입이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재배하고자 할 경우 번식을 위한 모수의 분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수의 구입이 어렵거나 고가인 경우는 번식이 어려운 수종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런 수종은 판매에 있어서도 고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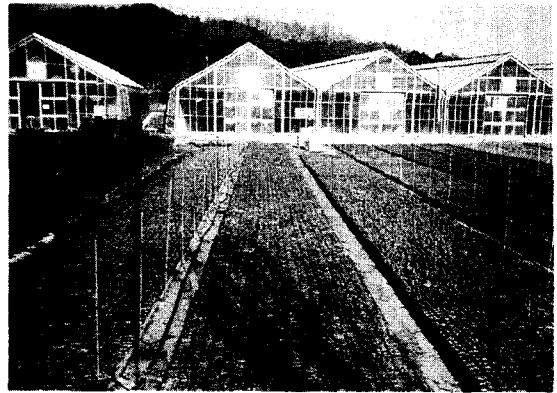
#### 나. 연간 판매 수량

지피식물은 포트로 규격화된 것이 많으므로 이른 봄 또는 겨울 동안에 포트에 담아서 상품화된 것이 판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 또 다시 포트의 모수를 분주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여러 병에 약해지고 따라서 상품의 질(質)조차 떨어지므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상품화된 당해년도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매가 양호한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 초



▲시설 재배 모습



▲노지 재배 모습

기 재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장 조사를 통해 적정 수량과 수종의 선정을 하여야 한다.

#### 다. 재배의 용이성

일반적으로 지피식물은 도입종의 경우 재배의 용이성이 충분히 검증된 수종들이나, 향토종의 일부 현재 대량 생산을 위한 재배과정에 있거나 식재시공 후의 생육상태 검증단계에 있는 수종이 많으며 학문적으로도 생육적 특성 등이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은 수종이 많다. 따라서 경험적 방법과 자생 생육지특성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초보자의 경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토종의 경우는 재배 또는 식재지역의 토양과 공중 습도, 일조 등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원 자생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한 재배조건을 구비하여 시작하는 것이 재배과정에서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 라. 번식 방법

지피식물 재배에 있어서 번식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번식의 방법은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으며,

##### • 영양번식

뿌리분주(축 분얼)-사사, 원추리, 붓꽃, 바위취 등

삼목-줄사철, 꽃잔디, 수호초 등

• 종자번식-패랭이, 감국, 매발톱, 구절초 등

• 포자번식-고사리류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개화가 되는 일부 수종들은 분주와 파종을 병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할미꽃의 경우 종자번식과 분주방법 두가지 모두 용이하나 종자의 보관 자체가 어렵고 발아도 쉽지 않아 대부분 분주에 의존하고 있어 번식 자체가 개체의 확보에 따른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번식의 용이성에 따라 판매금액이 정해지므로 번식이 용이한 수종을 선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그리고 전체 재배지역에 있어서 모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재배공간이 확보되어 연간 판매량을 예측하여 상품화하고 잔여분은 번식에 이용하여야 한다.

#### 마. 적정 재배면적의 확보

재배수종의 번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상품화 재배공간과 개체번식을 위한 공간으로 크게 구분하여야 하며, 재배 수종의 품종 수 또는 각 수종의 특성에 따라 재배면적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재배하고자 하는 수종의 생육적 특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 단위면적당의 적정 식재수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각 수종별 상품규격에 따른 단위 면적당 재배면적을 동시에 고려 적정 재배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종의 특성에 따라 시설재배 면적 또한 확보하여야 한다.

## 2) 시설의 준비

지피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 가. 원예시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일반적으로 시설 하우스는 수종의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설로 번식시기의 단축과 재배기간의 단축 등 단기간의 판매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선투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배하고자 하는 수종과 수량에 따라서 시설의 면적이 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과투자는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재배 실패에 따른 손해가 클 수가 있으므로 채소 또는 화훼시설로 설치되었다가 휴작 또는 폐적한 시설을 초기에는 임차하여 사용하면, 선투자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일부 수종은 하우스가 꼭 필요한 수종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나. 관수시설

지피식물의 상품은 포트화 된 것이 많으므로 작은 용기안의 습도는 생육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충분한 수량(水量)의 확보와 자동관수시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그리고 관수시설은 하우스 시설은 물론 노지까지 충분히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배면적에 따른 수

량의 확보는 재배지 선정시 우선 해결되어야 할 중요문제이다.

### 다. 차광시설

지피식물 중 일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수종이 생각보다 많다. 즉, 지피식물은 하층식재 수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차광시설 또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산식물인 물싸리같은 수종은 대표적인 수종으로서 목본류이면서도 일조에 생육지장을 크게 받는다.

차광시설로는 좁은 면적이거나 유료인 경우는 차광막을 설치하여도 되나, 장기간 그리고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노지재배 지역에 교목류를 식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상 토

지피식물의 포트는 초기 재배과정에서의 필요 영양분을 충분히 담아 적정기간내에 상품화를 하여야 한다. 일부 투자가 허용된다면 관수시설을 이용한 양액재배가 가능하겠으나, 각 수종별 특성이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시비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포트에 이식할 때 양질의 상토를 이용함으로써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상토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제품(피트모스+유기질비료)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부드러운 발

흙과 피트모스, 부엽토를 1:1로 현장에서 섞어 사용하면 된다.

지피식물의 경쟁력은 판매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판매력에 있어서 생산원가의 절감은 큰 요인이며 생산원가 중 인력비를 제외한 금액 중 용기와 상토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마. 기타 시설

기타 시설로는 노지에 재배할 경우 각 수종별 성장력이 차이에 따라 타 종과 혼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재배포지가 조성되어야 하며, 포트 재배 경우 발근이 양호한 수종은 노지에 뿌리를 내려 상품 반출시 빠른 시간 내에 건조현상을 보이는 등 여러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충분히 구비하여 재배를 시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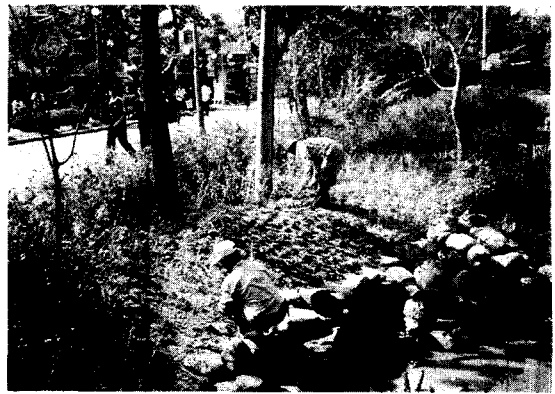
## 3) 주요 관리방법

지피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일반 수목과 동일하게 수시의 관찰과 정확한 판단에 따른 조기의 대책이 가장 중요한 관리방법이다. 그러나 여러조건 중 토양, 관수, 시비는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가장 양질의 관리수단을 가장 빠른 기간내에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의 모수 개체 확보는 일반적으로 노지재배가 원칙이나 이



▲파종 후 관리상태



▲지피식물의 식재 시공

경우 토양의 조건과 토양의 습도 그리고 일조 등은 수종의 특성을 바르게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재배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며, 상품화한 수종의 경우 어느 시기에 반출할 것인가를 사전에 파악하여 수종의 성장을 적절히 조절하여 최상의 품질의 식물을 출하하여야 한다.

#### 가. 토 양

일반적으로 토양은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양호하여야 한다. 호습성의 식물이라 하여도 과습의 상태는 엽의 갈변현상을 일으키며, 뿌리의 손상은 개체번식의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

토양의 영양상태는 항상 최적의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모수재배의 경우는 초기의 조성시기 외에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년 1~2회의 기비로도 충분하다.

#### 나. 제 초

초본류의 경우는 일반 잡초와

동시에 엽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초제를 사용하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인력에 의한 제초에 주력하여야 하나 지피식물의 생장력이 강하여 모수재배를 위한 노지포지는 적당한 제초만 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 다만 분얼 번식에 있어서 잘 제초된 지역에 비하여 축 발달이 덜하다.

#### 다. 시 비

상품화를 위한 포지 경우는 시비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뿌리가 포트내에서 완전히 성장한 시기에는 포트내의 상토만으로는 영양상태에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초본류의 경우는 질소 등의 부분 시비가 필요하며, 목본류의 경우는 복합비료나 유기질 비료를 장마 전에 또는 해토 전에 살초하여 생장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모수번식의 노지재배 경우는 포지 조성시의 충분한 기비와 함께 매년 해토전에 충분히 발효된 유기질 비료를 생산 살포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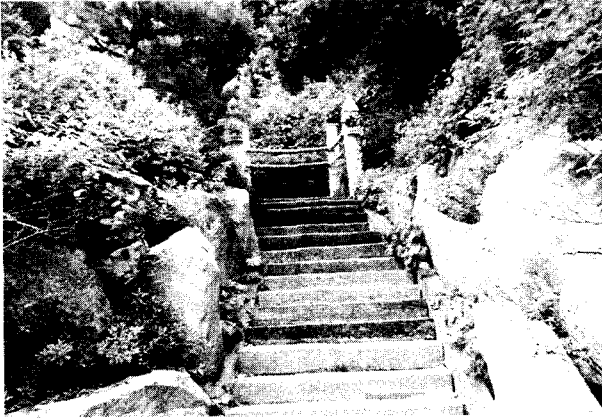
#### 라. 겨울철 관리

지피식물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수종은 겨울철 동해에 별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해의 번식을 위해서는 이영 또는 짚을 덮어 주면 좋다. 그리고 덩기 작업 전에 예초기를 이용하여 낙엽 고지를 제거하여야 다음 해 엽아(葉芽)의 발달이 좋아진다.

그리고 초본류의 경우 포트 경우에도 낙엽된 고지를 제거하는 것이 다음해의 성장을 위해서 좋다.

#### 마. 병충해 방제

지피식물은 과습이나 영양상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여러 병충해에 의해 성장에 지장을 받는다. 그러한 경우 각 수종별 자주 발생하는 충해의 생장 사이클을 고려 발병 전의 구제에 주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포지재배에서는 각 수종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병충해와 각 수종별 시기별 구분 발병되는 병충해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여 가능한 공통 구제작업으



◀시공 후의 모습

로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피식물 재배에서 심각한 병충해는 많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상기온 현상과 결합된 병충해 발생시 방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일시에 주변 유사 수종까지 전염되므로 그런 현상 발생시는 더 세심한 관찰을 하여야 한다.

#### 바. 기타

지피식물의 재배는 자연생육 환경조건을 최대한 유지하여 주는 것이 좋다. 따라서 책자나 직접적으로 생육 서식지를 답사하여 재배 경험을 간접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4) 번식방법

지피식물의 번식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 수목과 마찬가지로 종자번식과 영양번식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초본류의 경우는 종자번식과 함께 분얼번식을 한다.

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

량 종자와 삽수이다. 따라서 적정 시기에 우량목에서의 채취가 우선되어야 한다.

#### 가. 종자번식

국화과나 패랭이과, 줄풀과 등은 종자번식이 가장 좋다. 그리고 종자번식은 좁은 면적에서 가장 저렴하게 개체수를 단시간에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초기에는 종자번식 수종을 선택하면 좋다.

자생화의 경우는 각 수종별 개화 결실시기를 표로 작성하여 채취지역 선정과 함께 항상 숙지하여 가까운 임야에서 가능한 인위적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에서 행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생지의 경우는 동일 수종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량 채취 또는 채취과정에서의 파괴 행위는 지피식물을 업으로 하는 기본적 자세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나. 영양번식

일반적으로 목본류의 식물은 삽목에 의한 번식을 하는데, 당해 년도의 신초가 굳어지는 초여름부터 장마기간이 일반적으로 좋은 시기이다.

삽목을 할 경우 초보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는데, 초기 기본 토양의 선정과 발근까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영양번식은 우량종의 품성을 유지할 수 있고 출하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으나 비용은 종자번식에 비해 많이 든다.

#### 다. 분얼번식(분주)

붓꽃과의 대부분 식물은 종자에 의한 번식과 함께 구근 또는 뿌리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지하아(芽)의 번식을 병행하게 되므로 노지재배의 경우 적절한 시비관리를 하게 되면 많은 개체를 번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사류는 지하경 번식만을 하므로 뿌리 관리를 잘하여야 개체를 확보할 수 있다.

#### 5) 재배 규격

현재 제품의 출하시 각 식물의 규격은 재배용기인 포트의 지름 규격과 노지재배 수종의 분얼수로 정해진다.

포트로 명기되는 수종은 정상 방향에서 내려 보았을 때 포트의 면적을 충분히 피복할 수 있는 성장상태이면 상품으로 반출할 수 있다.

분얼의 수종은 봄에 발아 가능한 촉수는 포함 출하할 수 있으나, 가을에는 다음해의 성장 아(芽)이므로 제 규격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지피식물의 판매규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분 얼(촉)

식물의 발아 아(芽)로서 노지 재배 초본류의 경우 많이 적용되며 초봄의 발아 가능한 지하 눈도 포함된다. 분얼의 경우는 2~3, 4~5, 7~10분얼이 많이 사용되는 규격이며, 대표적인 수종은 붓꽃과 식물, 맥문동 등이다.

#### 나. 개화구

노지재배의 구근류의 경우 적용되며 식재 당해년도 엽과 화의 성장이 가능한 구근으로서 주요 수종으로는 나리류, 수선화 등이다. 그러나 개화구의 경우 2~3년의 기간 경과 후 수종의 특성이 퇴화되어 꽃의 회색이나 크기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 다. 포트

노지재배 초, 목본류를 규격화된 포트에 재배하는 경우 포트의 지름을 기준으로 하여 규격을 정한다. 정상 규격의 식물은 포트 전면적을 피복할 수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포트의 규격은 "3Pot부터 8Pot 사이"가 일반적 규격이며 가장 많은 수종이 포트에 재배된다. 주요 수종으로는 수

변식물인 갈대, 달뿌리풀을 비롯해 사사, 수호초, 인동덩굴, 등글레, 패랭이꽃 그리고 국화과 식물 등이다.

#### 라. 엽(葉)

엽아가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의 엽의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피식물 일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어리연꽃, 연꽃, 수련 등이다.

#### 마. 지(枝)

목본류의 경우로서 지상부의 줄기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지는 3지 이상을 원칙으로 모란 등이다.

#### 바. 줄기의 길이

만경목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규격으로 줄기의 길이와 식재된 포트의 규격과 몇 지(枝)인가를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줄기의 길이는 L=30, 또는 50cm 이상으로 한다. 줄사철, 머루, 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피식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모수를 제외한 출하를 위한 재배는 고시된(조경수 협회 또는 물가정보지 참조) 규격을 참고하여야 재배과정에서 이중작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품의 규격이 약 50여종을 제외하고는 고시되거나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동이 일어날 수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수종도 통일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피식물의 재배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을 서술하여 보았다.

그러나 지피식물의 생산 재배에 있어서 모든 1차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적정 수종과 적정 수량의 재배와 함께 판매를 위한 생산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지피식물의 활용이 정부 공공기관의 조경공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으나 연간 판매금액이 35억을 넘어서고 생산금액도 100,000원/m<sup>2</sup>를 넘어서고 있으니 수목을 생산하는 회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수목 재배지역의 하층식재를 위주로 한 재배를 한다면 제조비용의 부분 절감과 함께 연간 생산원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성 역시 민간공사까지 확대되는 시점으로 간주할 때 그렇게 빠른 시점도 아닐 것이다.

좋은 수종의 선정과 판매망의 확보라는 기본적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초기 생소한 개발 품종보다는 많이 알려지고 대량 판매가 가능한 몇 수종만을 선정하여 먼저 시작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는 것이므로 재배코자 하는 회원들의 관심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